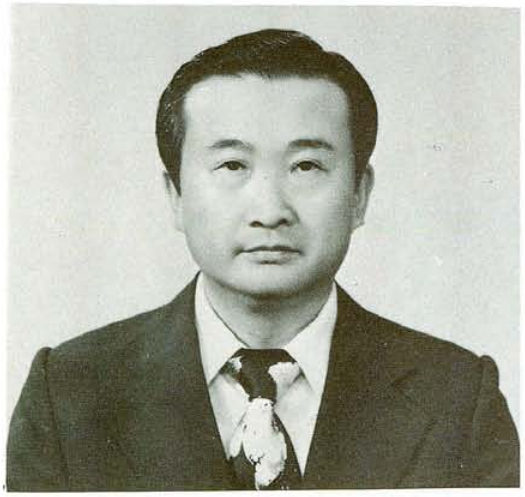


경전에서 답을 찾자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김 창 선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읍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깃 속으로 모으려 하는 것같이 자기도 여러 번 세상 사람들을 그의 품 안에 모으려 했으나 그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 즉 구약과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과 그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인 신약과 복음의 원리가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현대의 계시가 수록된 교리와 성약도 가지고 있읍니다.

경전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겠읍니까?

경전의 말씀은 비할 바 없는 철학과 윤리 및 인간 관계의 기본 원리, 훌륭한 시와 역사 그리고 훌륭한 금언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가 왜 경전을 알아야 하며, 경전을 알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밝혀 주셨읍니다.

"경전이 영감에 차 있고 신성하다는 것을 특징지워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전이 쓰여진 정신과 경전이 성실하고 양심적인 태도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풍성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쓰여진 목적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경전이 의도하는 바는 인간에게 크게 영적인 은혜를 주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결속을 굳게 하려는 데 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비판적인 사두게인들이 예수께 와 부활한 상태의 결혼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큰 의미를 전하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셨읍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29)

우리 모두 경전을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언자의 글은 우리와 우리 세대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비록 경전은 다른 시대에, 다른 배경 밑에서 쓰여졌으나,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세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알 수 없읍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마치 키도 돛도 없는 배가 대양에 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읍니다.

경전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한 가르침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읍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성도들이 경전에서 답을 찾도록 권고합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교리상의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읍니다.

"만일 우리가 경전에 있는 말씀에 어긋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는 경전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며 따라서 경전에서 찾아야 마땅한 답을 우리 마음대로 추측해 내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 오늘날의 가장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와 거짓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표준 경전을 주셨읍니다.

"너희가 받은 바, 경전 중에 율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나의 교회를 다스리는 율법으로 삼을지니라." (교리와 성약 42:59)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147차 총회에서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

지난 4월 대회에 3명의 총관리 역원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리조나 주립 대학 총장을 역임한 지 호머 더럼 장로와 십이사도 정원회 집행 서기로 봉사하고 있던 제임스 앰 패러모어 장로, 해기술 전문가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각각 부름을 받아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구성원은 이제 41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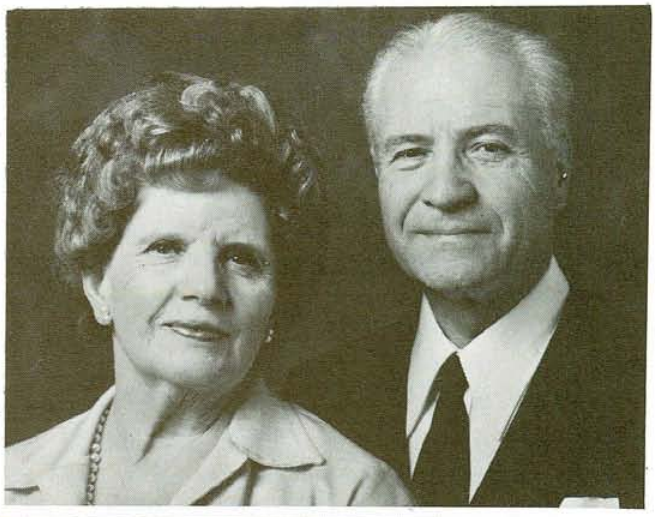
금년 66세인 더럼 장로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육자이다. 그는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유타주 고등교육 담당관으로 있었으며, 1960년부터 1969년까지는 아리조나 주립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유타 대학 부총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UCL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31년간 십이사도로 봉사한 고론 에이 윗소 장로의 막내딸 오도라 윗소 자매와의 사이에 세 자녀와 열여덟 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금년 48세인 패러모어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그후로는 계속 교회 직장에서 일해 왔다. 그는 오렘 샤론웨스트 스테이크 부장, 브라셀 선교부장, 오렘 14와드 감독을 역임했으며, 국립 청소년 위원회 이사로도 활약하였다. 그는 아내 헬렌 테스링톤 자매와의 사이에 여섯 자녀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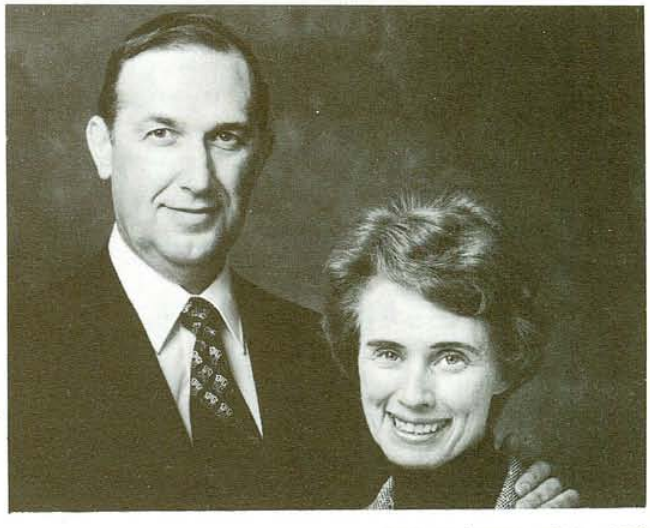
금년 48세인 스코트 장로는 조지 워싱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테니시주 오크릿지에 있는 핵기술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는 워싱톤 지역 핵기술 연구소 자문 위원으로 있었으며, 핵발전소에 관한 2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미국 해군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릭오버 제독과 함께 지난 12년간 일해오면서 노틸러스와 폴라리스 핵잠수함 개발에 참여하였었다. 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워싱톤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아르헨티나 북부 선교부장, 지역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아서 왓킨스 미상원 의원의 딸인 진 왓킨스 자매와의 사이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



더럼 장로 부처

패러모어 장로 부처



스코트 장로 부처

서울 스테이크 대회 갖다

지난 8월 13~14일 양일간 서울 스테이크는 제1와드에서 스테이크가 나뉘어진 이후 처음으로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스테이크 산하 5개 와드와 4개의 지부에서 89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는데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님의 위임을 받고 참석한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가 이 대회를 감리했다.

토요일 신권 역원회와 지도자 모임은 154명의 역원이 참석하여 선교 사업에 관한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이 담긴 영화를 관람했다. 이어 고마쯔 장로는 모든 젊은이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모든 역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각 집회에서는 각 역원이 계획을 세워 번갈아 가면서 구도자 가족을 집회에 초대할 것을 강조하셨으며, 그리고 젊은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쳐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일요일 일반 총회는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이 모임에서 귀환 선교사 1명과 일주일 전에 침례를 받은 상계 지부 회원 부부의 간증을 들었고 이어서 서 희철 부장의 말씀과 최 욱환 부장의 말씀을 들었다. 최 부장은 말씀에서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센 것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이기는 강자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도 강해진다"고 말씀하셨다.

제1와드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송에 이어서 고마쯔 장로는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동경 사무실을 떠나올 때 부인이 몹시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신권 지도자의 지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떠나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불평 불만없이 따르면 자신에게는 평화가 따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다. 이어서"선교 사업은 우리의 필생의 사업이요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대회에서 장로 19명과 대제사 1명이 탄생했다.

(위)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과 신권 지도자들.
(아래)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

로스앤젤리스 한국인 지부 조직

지난 3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시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인 지부가 설립되었다.

7월 15일 현재 60명이 참석하는 이 한국인 지부의 지부장에는 이 태문 형제, 제1보좌에 차 종환 형제, 제2보좌에 이 정현 형제가 각각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다.

지부장 이 태문 형제는 현 서울 서 스테이크 2와드 전신인 서부 지부에서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 차 종환 형제는 서울 스테이크의 전신인 서울 지방부 지방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제2보좌인 이 정현 형제는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기타 교회에서 역원으로 크게 활약한 바 있다.

이곳 지부에서 수고하는 형제로는 신 채원, 박 문정 형제 등을 들 수 있다.

7월 현재 5가족 11명이 다시 침례를 받았고, 5가족 12명이 복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지부는 다채로운 선교 활동을 펴고있어 앞으로 큰 발전이 기대된다.

로스앤젤리스 한국인 지부 지부장단, 좌로부터 이 정현 제2보좌, 차 종환 제1보좌, 이 태문 지부장, 서기 박 창훈 형제.

하킨스 신임 선교부장 부임

지난 7월 3일 신임 서울 선교부장인 하킨스 부장이 부인과 딸 제니퍼와 함께 김포 공항착 부임하였다. 스테이크와 선교부 산하 많은 회원들의 열열한 환영을 받은 선교부장은 "이토록 열열한 환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환영 나온 모든 회원에게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하킨스 부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했던 최초의 선교사 12 명 중 한 사람이다. 임기를 마친 틸 선교부장 역시 그 그룹의 일원이었다. 두 신·구 선교부장은 서로 얼싸안고 새로운 감회를 나누었다. 이로써 한국 교회사의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하킨스 부장과 가족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살았다. 그는 머리 사우드 스테이크 머리 제 7 와드 감독으로 3 년간 봉사하였으며 이곳에 오기 전까지 리버뷰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공항에서 영접받고 있는 하킨스 선교부장 부처와 환영나온 성도

서울 동서 스테이크 소년 대회 갖다

지난 7 월 27일부터 30일까지 3 박 4 일간 서울과 서울서 스테이크 합동으로 강원도 춘성군 덕두원 국민학교에서 소년 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는 중학생 71 명, 고등학생 129 명, 역원 32 명, 총 232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 퀴즈, 성구 암송, 토론, 독서법에 대한 세미나, 취침전 15분간 경전 읽기, 미니 올림픽, 경보 대회 등 다채롭고 유익한 활동을 가졌다. 그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주님의 오묘한 창조를 깨닫고, 단체 생활을 통하여 협동 정신을 기르고, 간증을 키우며 앞으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자질을 쌓았다. 이 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한 형제는 이 기회야말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인 체험을 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 설명 : 아래의 사진들은 소년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구김살 없는 활동 모습이다.